

후지노키(藤ノ木) 고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후지노키 고분은 이코마군(生駒郡) 이카루가초(斑鳩町)에 있다. 호류지(法隆寺)의 서쪽 약 350m에 위치하고 야타(矢田)구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오는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직경이 약50m정도인 원분(円墳)으로 매장시설은 고발식(割拔式) 가형(家形)석관을 안치한 횡혈식석실이다. 분구는 헤이안(平安)시대 이후에 크게 변모되어 현재는 단축(段築)이나 이음돌(葺石)은 확인되지 않는다. 분구 끝자락에서 원통형 하니와의 기저부분이 출토되었는데 본래는 하니와를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횡혈식석실은 남쪽으로 입구가 열린 양수식(兩袖式) 횡혈식 석실로 전체길이 13.95m, 석실의 크기는 길이 6.0m, 폭 2.3m, 높이 4.4m이다. 석실 바닥에는 전면 자갈을 깔았다. 바닥면 밑에는 배수를 위해 돌로 짠 배수로가 널길(羨道)에서 막음돌(閉塞石) 밑을 지나 석실 밖으로 연결돼 있다.

석실 안쪽에는 석실의 주축과 직교하듯이 석관이 안치되어 있다. 오사카부(大阪府)와 나라현의 경계에 위치하는 니조산(二上山) 산에서 산출한 백색 응회암을 사용한 고발식 가형 석관으로 관의 안과 밖에는 붉은 칠을 했다. 관의 몸체는 최대 길이 235cm, 최대 폭 139cm, 최대 높이 152cm로 머리를 둔 동쪽의 폭을 넓게 만들었다. 뚜껑의 긴 변쪽에는 좌우로 각각 2개씩 새끼줄을 걸 수 있는 돌기가 붙어 있다.

석실 안의 출토품은 모두 바닥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위치는 석실 안 중심축 부근과 석관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 석실 안 중심축 부근에서는 스에키(須恵器)·하지키(土師器)가 출토되었고 석관 주위에서는 말갓춤, 비늘갑옷(掛甲), 쇠칼(鐵刀), 쇠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본래는 석관과 안쪽 벽 및 동쪽 벽 사이에 부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후대에 교란된 것으로 생각된다.

말갓춤은 3조가 확인되었다. 가장 화려한 것은 금동제 극엽형(棘葉形) 말띠드리개, 심엽형(心葉形) 재갈머치가 부착된 재갈, 원형의 장식 금구, 영락(步搖)이 달린 말엉덩이 연결장식, 용무늬 장식 금구(龍文飾金具), 안장, 말다래(障泥), 향아리모양 발걸이(壺鐙) 등의 세트이다. 모두 놀라울 만큼 뛰어난 작품이지만 특히 안장꾸미개는 당시의 동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교와 장식을 응축한 초일급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큰 칼과 도끼를 쥔 귀신, 투각된 코끼리·용·사자·도깨비 얼굴·봉황·토끼, 가장자리에 새겨진 종려나무잎 무늬·용문 등의 디자인과 거기에 장식된 대단히 섬세하고 탁월한 금공기술은 감탄할 만하다.

석관 안에는 2명의 피장자가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매장되었으며 시신 부근에는 엄청난 양의 부장품이 매납되어 있다.

북쪽 피장자의 머리부근에서는 청동거울 3매가 출토되었고 그 주위에서는 유리제 둥근 구슬(丸玉), 은제 도금 치자모양 구슬(梔子玉), 은제 도금 공옥(空玉) 등 많은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머리에서 상반신 사이에는 길이 60cm, 폭 약20cm의 검색과 황색 유리구슬이 교차되어 마치 주렴(簾)인 듯 보이는 형태로 출토되었다. 뒷머리 부분을 장식한 장신구로 보인다. 발 아래에는 금동제 관, 금동제 신발, 몸 옆에는 큰 칼[大刀·劍]이 놓여 있었다.

남쪽 피장자의 머리 부근에서는 귀걸이 한 쌍, 청동거울 1매, 그 밖에 머리 정수리 부

근에서 통형 금동장식(金銅制筒形品)이 출토되었다. 목 부근에서는 은제 공옥이 연결된 상태로 있었고 녹색과 황색 등의 유리구슬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다. 발 아래에서는 금동제 신발, 금동제 큰 허리띠(金銅制大帶)가 출토되었고 양 발목에 감았던 것으로 보이는 유리제 큰 구슬(大玉, 足玉) 2줄도 확인되었다. 또 남쪽 피장자 옆에는 큰 칼〔大刀〕 4점이 놓여 있었다.

석관 안 유물도 물고기·새·배 등의 달개(步搖)를 단 관·신발·통형 장식과 화려한 장신구류, 금은·유리 장식으로 꾸민 둥근고리 자루 큰 칼(捻り環頭大刀; 손잡이 부분에 철사등을 꼬아 만든 반원형 장식이 달려있다) 등 모두가 뒤지지 않는 일급품이다.

후지노키 고분의 석실 안과 석관 안의 유물은 2004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고분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생각된다. 피장자 후보로 스순(崇峻) 천황, 아나호베(穴穗部) 황태자·야카베(宅部) 황태자, 기(紀) 씨, 헤구리(平群) 씨, 가시와테(膳) 씨 등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외교 협상에 뛰어난 국가의 중추적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